

1. 밑줄 친 '유적지'에서 출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물은? [1점]

○○ 대학교 박물관에서 국내의 어느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연대 측정을 하려고 시료를 채집하였다. 이를 C¹⁴ 연대 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연대가 4,660±100 B.P.가 나왔다.



정답: ⑤

* 선사 시대 시기 구분(신석기)

• 4660±100B.P란 현재 기준으로 4660년 전과 100년의 오차 범위를 말한다. 즉 B.C 2700년 경이고 여기에 100여 년의 오차를 감안한다는 의미이므로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B.C 8000년 경부터 시작).

• **주의점:** 한반도에 처음 청동기가 도입된 시기는 B.C 2000~1500년 경으로서 앞선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덧띠새김무늬토기가 병존하였다.

• <선사 시기 구분>

구석기: 70만년 전 시작

신석기: B.C 8000년 시작,

청동기: B.C 2000~1500년 시작

초기 철기(청동기 병용): B.C 5C 시작

철기의 본격화: B.C 1C 이후

① **세형동검:** 철기 시대에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 비파형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바뀌었다.

② **명도전:**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 준다

③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④ **토우장식장경호(土偶裝飾長頸壺):** 신라 시대(5~6C)의 소박하면서도 예술성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의 신앙과 풍부한 감정 표현을 보여준다.

⑤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 역사서 편찬 당시 저자의 성향과 사관 등으로 미루어 이 책의 열전(列傳)에 입전(入傳)되지 않은 사람은? [2점]

“지금의 학사, 대부분은 오경과 제자(諸子)의 글 및 진(秦), 한(漢) 역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두루 통하고 자상히 설명하는 자가 더러 있으나, 우리 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럽다.” …… 또, 그 고기(古記)라는 것도 글이 거칠고 볼품 없으며 사건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서, 군후(君后)의 선악과 신자(臣子)의 충사(忠邪)와 국가의 안위와 인민의 치란(治亂)을 모두 드러내어 경계로 삼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 삼가 본기(本紀) 28권, 연표(年表) 3권, 지(志) 9권, 열전 10 권을 찬술하여…

- ① 원효, 의상 등 승려
- ② 우륵, 솔거 등 예술인
- ③ 흑치상지, 계백 등 백제인
- ④ 온달, 연개소문 등 고구려인
- ⑤ 견훤, 궁예 등 왕건의 경쟁자

정답: ①

* 고려 김부식의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 자료는 기전체 역사서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는 본기, 연표, 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제후국이 없기에 세가(世家)는 없음).

삼국사기: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1145년(인종 23) 국왕의 명령을 받아 편찬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정사(正史)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구성은 크게 본기(本紀) 28권, 지(志) 9권, 연표(年表) 3권, 열전(列傳) 10권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진삼국사기표>에는 "사대부가 우리 역사를 잘 알지 못하니 유감이다. 중국 사서는 우리나라 사실을 간략히 적었고, <고기(古記)>는 내용이 졸렬하므로 왕·신하·백성의 잘잘못을 가려 규범을 후세에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편찬 동기를 기록하고 있다

① 본래의 기전체 역사서의 <열전>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 인간 삶의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한 개인 전기인데, 김부식은 합리적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저술하였기에 원효, 의상 등의 불교계 인물은 저술하지 않았다.

3. 지도의 빗금 친 지역을 신라가 자국 영토로 편제, 운영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당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 ② 발해를 견제하려고 이 지역에 패강진을 설치하였다.
- ③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진압한 후에 이 지역을 확보하였다.
- ④ 이 지역을 점차 군사적 특수 구역으로 독립시켜 나갔다.
- ⑤ 한주(한산주)에 소속시켜 통치하다가 점차 이 지역의 군현을 확대하였다.

정답: ③

* 통일 직후 황해도 지역

보기의 지역은 검모장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역이다. (황해도 지역: 패강진)

패강진: 신라 시대에 예성강 북쪽에서 패강(지금의 대동강) 남쪽에 이르는 지역의 관할을 위해 설치했던 군진. 나당전쟁에서 이긴 후 대동강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된 신라는 735년(성덕왕 34)부터 개척을 시작하여 748년(경덕왕 7) 예성강 이북에 14개 군현을 설치했으며, 781년(선덕왕 2) 대곡성(지금의 황해도 평산)에 패강진을 정식으로 설치했다. 패강진은 후에 봉산으로 옮겨졌다. 중국 대륙과 발해를 경계로 설치되었던 패강진은 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① 발해와의 전쟁(733) 이후에 735년 성덕왕 34년에 패강 일대의 신라의 영유권을 당나라가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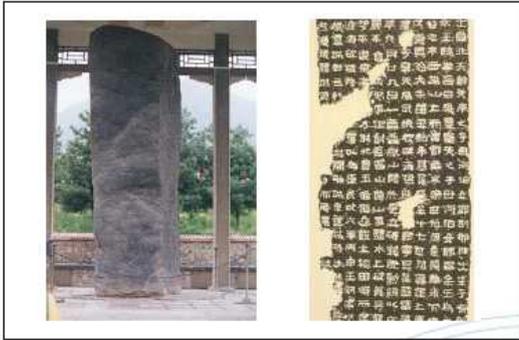
② 발해와 접경 지역이므로 견제적 성격의 요충지이다.

④ 중국 대륙과 발해를 경계로 설치되었던 패강진은 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군정(軍政)적 성격의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③ 검모장과 안승은 보장왕의 서자 고연무를 왕으로 추대하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신라는 이를 지원했으나 당의 야욕으로 실패하였으며 나.당 전쟁(676년 종료)을 거친 후에 신라의 영토(한산주)로 확보되었다.

⑤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조에 이 지역이 한산주에 소속되었으나, 나머지 삼국사기 등의 기록들을 검토하면 한산주와 패강진은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패강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어, 다른 8개 주에는 1개의 정(지방군)만 두었으나 한산주는 2개의 정을 두었다. 즉 패강진은 거의 준주(準州)로 취급된 모양이다.

4. 다음 비석이 제작되었던 시기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ㄱ. 해당 지역의 인민과 토지를 중앙 정부가 직접 장악하여 성(城), 곡(谷)을 단위로 하는 지방 통치 체계를 갖추었다.
- ㄴ. 귀족 연립 정권의 정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국왕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등인 대대로의 선임에 간여하지 못하였다.
- ㄷ. 왕당(王嬭)이라 불리는 국왕 직속 부대 이외에 대가(大加)의 사적인 군사 조작을 대외 정복 활동에서 중요 군사력으로 활용하였다.
- ㄹ. 태조왕을 사실상의 시조로 하는 기존의 왕실 계보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추모왕 계보를 연결하여 추모왕을 시조로 하는 왕계를 정립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고구려의 전성기(전제 왕권): 장수왕(5C)

상기의 자료는 광개토대왕비와 그 비문이며, 이를 제작한 것은 그 다음 왕인 장수왕 때이다(5세기)

* 광개토대왕릉비

이 비는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長壽王)이 왕 2년(414년)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당시 수도였던 압록강 유역인 중국 길림성 통화전구 집안현 통구성(중국 현지에서는 집안현)에서 동

북쪽 약 4.5km 지점의 태왕촌(太王村)에 있다.

광개토대왕릉비의 내용

- 1부: 고구려의 개국 설화 (주몽 설화 -> 천손 의식)
- 2부: 광개토대왕의 군사적 공적 (영토의 확장과 왜군 격퇴 사실)
- 3부: 능묘를 지키기 위한 연호(烟戶: 수묘인) 300호의 배치 상황 등

• 장수왕은 중국(남.북조) 및 북아시아의 여러 세력들(유연 등)과 다각적인 외교를 통하여 서방의 안정을 이룩하였고, 이를 토대로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체제의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414년에는 고구려 왕실의 신성성과 부왕인 광개토왕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광개토왕릉비를 건립하였고, 427년에는 국내성에서부터 평양성으로 천도를 단행하여 국내성 일대에 뿌리깊은 기반을 가진 고구려 귀족 세력의 약화 및 국가 운영을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 장수왕과 같은 정복군주에게는 중앙집권 정책과 귀족세력을 압도하는 힘이 있음은 역사적 상식

㉡ 대대로(귀족 관료의 대표-수상) 선출에 국왕이 관여치 못함은 왕권 약화를 보여준다

㉢ 왕당(국왕 직속 부대)외에 대가(대부족장)의 사병의 존재는 중앙 집권 이전인 초기 고구려의(연맹 왕국) 모습이다

㉣ 왕실의 권위를 위하여 시조인 추모(주몽)로 연결되는 천손의식 가계를 정립하였다

5. 밑줄 친 '이 지역'에서 발전했던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지역은 중국과의 교통이 편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고조선에서 망명한 준왕의 정치 집단이 정착한 곳이었다.

- ① 철을 많이 생산하여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② 50여 소국으로 이루어졌고, 제사장인 천군이 지배하던 소도가 있었다.
- ③ 읍락에는 후,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고, 책화의 풍습이 엄격히 지켜졌다.
- ④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질투하는 아내는 죽였다.
- ⑤ 혼인한 뒤, 처가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풍속이 있었다.

정답: ②

* 초기 국가: 마한

• 중국과의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위만에게 패배하여 나라를 빼앗긴 고조선의 준왕이 뱃길로 한반도 남부로 가서 한왕(韓王)이 된 곳은 오늘날 한강 유역 지역이 되었고 초기 국가 마한이 있던 곳이 되었다.

•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삼한의 지배자 중 세력이 큰 것은 신지, 작은 것은 읍차 등으로 불렸다.

①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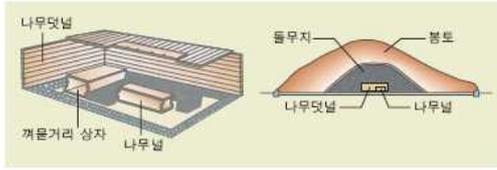
② <후한서>에는 마한에 54국, 진한에 12국, 변한에 12국이 있다고 한다.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③ 옥저와 동예의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④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 값의 12 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일종의 데릴사위 제 풍속이 있었다.

6. 다음은 고대의 무덤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도굴이 어려워 꺼묻거리가 많이 남아 있다.
- ② 무덤 내부에 무덤 주인의 생활상을 벽화로 남겼다.
- ③ 백제 초기의 무덤 양식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 ④ 무덤 주위에 돌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 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연화무늬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정답: ①

* 초기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 목곽분)

돌무지덧널무덤: 신라 초기에 주로 만든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꺼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꺼묻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② 고구려 후기의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널방의 벽과 천장에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런 무덤은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널려 있다.

고분 벽화는 당시 고구려 사람의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초기에는 주로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이 있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추상화되어 사신도 같은 상징적 그림으로 변화하였다.

③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봉토 주위를 돌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⑤ 백제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7. 다음은 한반도의 주요 구석기 유적지를 표시한 지도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1932년, 동물 화석이 출토되면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이 드러났다.
- ② (나) - 1970년대 초, 한반도 내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의 인골 화석이 발견되었다.
- ③ (다) - 1970년대 말에 발견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전형적인 유적이다.
- ④ (라) - 1970년대 후반, 남한 지역에서 인골 화석이 처음 출토되었다.
- ⑤ (마) - 1960년대 전반, 유적이 발굴되면서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정답: ③

* 구석기 유적지들

(가) **함북 중성 동관진**: 한반도 최초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1932), 동물 화석 출토

(나) **평남 덕천 승리산**(1972): 만달동굴, 한반도 최초의 인골화석 출토

(다) **경기 연천 전곡리**(1978): 주먹도끼 출토(미군 발견, 아슐리안형 양면핵석기 - 동아시아 최초의 희귀성, 전기 구석기 말)

(라)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1976): 홍수아 이 인골 출토(남한 최초, 1983년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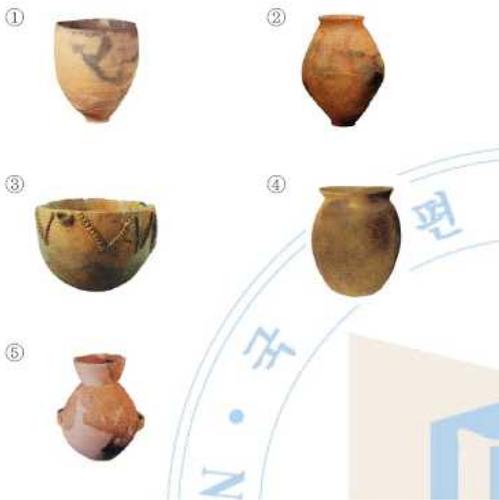
(마) **충남 공주 석장리**(1964): 석기 가공기술 정도로 파악해보면 전형적인 후기 구석기 유적지이다. 또한 전기~후기까지 모두 출토된 특징이 있다

③ 전곡리 유적지는 홍적세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구석기 유적이다. 하부의 연대가 약 60만년 전, 상부의 현무암이 약 30만년 전후로 알려졌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의 석기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세계 전기 구석기 문화가 유럽·아프리카의 아슐리안 문화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짝개 문화 전통으로 나누어진다는 기존의 H.모비우스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토기는? [1점]

1959년,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동굴 유적의 청동기 문화층에서 특이한 모양의 토기가 발굴되었다. 이와 같은 모양의 토기는 주로 청천강 이북, 중국 요령성, 길림성 일대에서 발견되었는데,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간주되고 있다.



정답: ⑤

* 미송리식 토기(청동기)

평북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처음 발굴되었다.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청천강 이북, 여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한다.

이 토기는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간주된다.

① **민무늬토기** 계열로 추정(청동기~철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 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밑바닥이 편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빛깔은 적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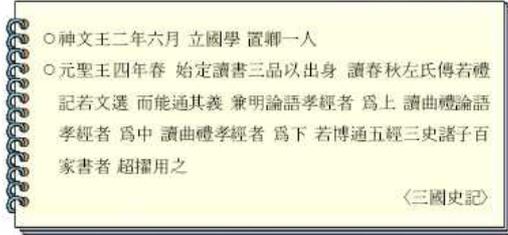
② **송국리식토기**(청동기~철기): 송국리형 토기는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특징적인 토기로 배부른 몸통, 바깥쪽으로 짧게 벌어진 아가리를 지녔다. 청동기시대에는 구멍무늬토기처럼 목이 없는 바리(鉢)가 주로 출토되다가 송국리형 토기와 같이 목을 지닌 항아리(壺)의 형태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③ **덧무늬토기**(초기 신석기): 우리 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은 무늬가 없는 것, 토기 몸체에 덧띠를 붙인 것, 눌러 찍은 무늬가 있는 것으로, 각각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무늬 토기(압인문 토기)라고 부른다. 이런 토기는 제주도 한경 고산리, 강원 고성 문암리, 강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등에서 발견되었다.

④ **김해식 토기**(초기 철기~원삼국): 민무늬 토기 계열. 철기 시대에 들어와 토기는 민무늬 토기 이외에 입술 단면에 원형, 타원형, 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등도 사용되었다. 김해식토기는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에서 전한대(前漢代)에 걸친 타날문의 회도(灰陶)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 초기 철기시대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 남한 전역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한강 이남에 분포되어 있는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적갈색 및 회청색의 경질 타날문토기를 의미한다.

⑤ **미송리식토기**(청동기): 청동기의 토기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9. 경호는 '한국사의 이해' 수업을 들으면서 보고서를 준비하려고 다음의 사료들을 찾았다. 경호가 받은 보고서 주제로 타당한 것은? [2점]



- ① 백제의 역사 편찬
- ② 신라의 역사 편찬
- ③ 고구려의 교육 제도
- ④ 통일 신라의 교육 제도
- ⑤ 발해의 관리 선발 제도

정답: ④

* 통일신라기의 유학

보기의 자료는 국학과 독서삼품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통일신라기의 유학교육을 보여 준다

* 국학: 682년(신문왕 2) 예부(禮府)에 설치. 국학은 통일 이후 전제왕권강화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유교정치이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특정한 관직을 위한 것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의 양성에도 목적을 두고 있었다

* 독서삼품과: 신라 때 관리 채용을 위한 일종의 국가시험 제도로써, '독서출신과'라고도 한다.

원성왕 4년(788년) 종래의 골품제를 기초로 한 별족 본위의 인재 등용을 지양하여 학벌 본위의 관리 채용을 지향하기 위해 독서삼품과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응시자는 그 독서의 성적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채용.

1등급: '춘추 좌전', '예기' 또는 '문선'을 읽어서 능히 그 뜻을 통하고 '논어', '효경'에 밝은 자를 상품(上品),

2등급: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

3등급: '곡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구별하였다.

그러나 만일 '5경', '3사', '제자백가서'에 통한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기용하였다.

10. 지도의 (가)와 (나) 두 지역에 있었던 가야 소국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가)	(나)
① 위상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
② 성장 배경	높은 농업 생산력과 철 생산	낙랑과 왜를 잇는 중계 무역
③ 대표 유적	지산동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
④ 쇠퇴 배경	고구려군의 침공	백제의 군사적 압박
⑤ 멸망	신라 진흥왕대	신라 법흥왕대

정답: ④

* 가야 주도 세력의 변천

(가) 대가야(고령), (나) 금관가야(김해)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 되었고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김수로에 의하여 건국 되었는데(42),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쳤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4세기 초부터 백제(근초고왕)와 신라의 팽창(내물왕)에 밀려 전기 가야 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말~5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하여 가야의 중심 세력이 해체되고,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가야 연맹은 5세기 초에 크게 변하였다.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면, 그 동안 낙후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고령, 함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산간 지대에서 그간 수도작(水稻作) 농경과 야철술을 배경으로 실력을 양성하였고, 5세기 후반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이후,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특히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의 진출로 후기 가야 연맹은 분열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신라에 정복당하였고(532, 법흥왕),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결국,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면서(562, 진흥왕) 가야 연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③ 대가야는 고령 지산동 고분(금동관 출토)이 유명하고, 금관가야는 김해 대성동 고분(파형동기 출토)이 유명하다.

11. 밑줄 친 국왕의 이름과, 그가 당시 일본과 우호 관계를 추진한 배경을 옳게 짝지은 것은? [2 점]

○ 고려 국왕 대흥무(大興茂)가 말하기를 “일본의 천황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프고 추모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보국장군 양승경과 귀덕장군 양태사 등을 보내어 표문 및 물품과 함께 조문하게 합니다.”
 ○ 천황이 고려 국왕에게 삼가 문안드립니다. …… 보내 주신 물품은 숫자대로 잘 받았습니니다. 돌아가는 사신 편에 토산품 등을 보내니, 비록 물건이 가볍고 적고 보잘것없으나 좋게 생각하셔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일본기>

	국왕 이름	우호 관계를 추진한 배경
①	고구려 장수왕	나·제 동맹의 무력화와 백제 및 신라의 배후 위협
②	고구려 영양왕	수의 침공에 대비한 후원 세력 확보
③	발해 문왕	후원 세력 확보와 일본을 활용한 신라 견제
④	발해 무왕	당과 일본을 잇는 국제 무역로 확보
⑤	고려 문종	송, 요,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 주도

2-2-1

정답: ③

* 발해 문왕(대흥무)의 업적

문왕(737년~793년): 무왕의 아들로써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북으로는 불열말갈과 철리말갈을 포섭하였고, 또한 남쪽으로 용흥강 주변까지 발해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정했다가 다시 동경 용원부로 옮겼다. 문왕은 관직제도를 제정, 사적(史籍) 수입, 주자감(胄子監) 설립 등 정치·문화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당나라 등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였다.

그의 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문왕을 가리켜 황상(皇上)이라 칭하고 있어 발해가 그의 대에 이르러 내부적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 **무왕(대무예: 719~737)**: 고왕(대조영)이 죽자 아버지를 계승하여 발해를 통치했다. 연호는 인안(仁安)이라 하였다. 일본과 수교(修交)(국서 자료 있음)하여 사신 왕래와 문물교환을 자주 하는 한편, 나라 안에서는 무력을 양성하여 726년(인안 8년) 아우 문예(門藝)로 하여금 흑수말갈(黑水靺鞨)을 공격하게 하였다. 732년에는 당나라의 등주(登州, 지금의 산둥 성 옌타이)를 공격하였다

③ 발해는 일본과 바닷길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사신이 오가면서 무역에도 힘썼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2.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7조,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짐짐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수명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
○ 11조,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습은 각기 그 토질을 따르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악, 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 의복 제도는 우리 풍속대로 하여 사치와 검소를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사결요>

— <보기> —

ㄱ. 국가적 행사인 팔관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연등회는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ㄴ. 정치 이념을 유교에 두면서 국왕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중앙 집권 체제 강화를 추구하였다.
ㄷ. 통일 신라 때부터 지방 행정상 중시되던 곳에 12목을 설치할 것과 향리제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ㄹ. 새로운 개혁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해 제한된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28조’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유교 정치 이념 채택)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연등회, 팔관회)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유교의 정치 이념 채택과 지방관(외관) 파견 주장(->12목에 지방관 파견).
-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도교(초제), 토속적인 행사 그리고 불교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되는 폐단을 비판 (연등회, 팔관회 행사의 축소)
- 유교적(중국적)이지만 자주적인 것을 강조

㉠ 최승로는 국왕의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를 지향하였다. 즉, 지방관 파견과 향리 제도 정비(호족 세력의 억압), 중앙 관료의 예우, 삼한 공신과 세가(世家)의 자손들에 대한 관직 제수를 건의하였다.

㉡ 엄격한 신분관을 견지하며 귀족 관료들의 권위와 특권을 강하게 옹호하는 제한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즉, 신분에 의한 가옥 제도, 의복 제도, 양천지법(良賤之法)의 확립을 통한 엄격한 사회 신분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여 노비환천법(987)이 실시되었다.

13.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던 시기의 불교계와 사상계의 동향으로 옳은 것은? [1점]

그 때에 이인로, 오세재, 임춘, 조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 등이 스스로 한때의 준결이라 하여 벗어 벗이 되어 칠현이라 일컫고 매양 모여서 술 마시고 시를 지어서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았다. 오세재가 사망하자, 이담지가 이규보에게 이르기를 “자네가 빈 자리를 메울 수 있겠는가?” 하니, “칠현이 어디 조정의 관직이기에 그 결원을 메우는가?”라고 하였다.
 <고려사>

- ① 국청사가 낙성되고 천태종이 개창되었다.
- ② 균여가 화엄종 중심의 교선 통합을 시도하였다.
- ③ 지눌이 결사를 통한 불교계 개혁 운동을 제창하였다.
- ④ 불교계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보우 등의 노력이 있었다.
- ⑤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정답: ③

* 고려 후기(13C 초) 무신 정권기 불교계와 사상계 동향

• 이규보(1168~1241)가 힌트, 무신 정권기(1170~1270)이고 불교의 타락이 있었고 불교 정화 운동(결사 조직)이 있었다.

• 이인로, 임춘, 오세재, 조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는 해좌칠현(海左七賢)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신의 집권으로, 정치에 대한 뜻을 버리고 강호에 은거하며 청담을 즐긴 7인의 문사들 모임을 말한다.

•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지눌(1158~1210)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지눌이 수선사를 열면서부터 매우 흥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중심적인 종파가 되어 많은 승려를 배출하였다.

①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1055~1101)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홍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 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② 고려 초기에는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923~973)의 화엄종이 성행하였고, 선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④ 원 간섭기에 이르러 개혁 운동의 의지가 퇴색하고 귀족 세력과 연결되어 불교계는 다시 폐단을 드러내었다. 사원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상업에도 관여하여 부패가 심하였다. 이에 교단을 정비하려는 보우(1301~1382)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⑤ 고려 말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대두한 신진 사대부는 이와 같은 불교계의 사회·경제적인 폐단을 크게 비판하였는데, <불씨잡변>을 쓴 정도전(1342~1398)의 이 대표적이다.

14.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을 회복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은? [2점]



- ① 과전법 실시
- ② 정치도감 설치
- ③ 경사교수도감 설치
- ④ 사림원 중심의 개혁
- ⑤ 문종대 관제로의 회복

정답: ⑤

*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반원자주정책)

보기의 지역은 공민왕이 원으로부터 무력으로 수복한 쌍성총관부 지역이다

공민왕(1351~1374): 14세기 중반에 이르러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1368)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의 숙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몽고풍을 없애는 등 반원 자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 ① 과전법 실시: 공양왕(1391)
- ② 정치도감: 충목왕 (1347:고려시대의 폐정개혁기관)
- ③ 경사교수도감: 충렬왕(1296: 고려시대 7품 이하의 관리들에게 경(經)·사(史)를 가르치던 관청)
- ④ 사림원: 충선왕(1298: 문한 담당)
- ⑤ 문종(1046년~1083년) 때는 고려의 황금기이고 문물제도가 크게 정비된 시기이므로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했다는 문종대의 관제로 복구되었음을 의미한다.

15. 다음은 신라 하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만들어진 각 시
 특징적인 승탑(부도)이다. (가)~(라)를 제작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점]

(가)



지광국사 현묘탑

(나)



회암사 무학대사 홍융탑

(다)



전(傳) 홍법사 염거화상탑

(라)



고달사지 원종대사 부도

- ① (가)-(나)-(다)-(라)
- ② (나)-(라)-(가)-(다)
- ③ (다)-(라)-(가)-(나)
- ④ (다)-(나)-(라)-(가)
- ⑤ (라)-(가)-(다)-(나)

정답: ③

* 승탑의 역사

신라 말: 낮은기단에 낮은 크기, 홍법사 염거화상탑,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고려: 탑이 높아짐, 고달사지 원종대사 승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조선 초: 다시 탑이 낮아짐, 회암사 무학대사 홍융탑

• **홍법사 염거화상탑:** 탑 속에서 《금동탑지(金銅塔誌)》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으로 이 탑의 축조 연대가 844년(신라 문성왕 6)임을 알게 되었다.

• **고달사지 원종대사 부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北內面) 상교리에 있는 신라 말 또는 고려 초의 화강석 부도.

•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원래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富論面) 법천리(法泉里)에 있었으나, 국권침탈 직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반환되어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고려 시대의 화강석 묘탑(墓塔).

• **회암사 무학대사 홍융탑:** 1407년(조선 태종 8) 제작

16. 밑줄 친 '이 시기'의 경제 활동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점]

- 경공장(京工匠)은 경국대전에서 2800여 명으로 규정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 황해도 평산읍은 경국대전에 외공장 정원을 7명으로 규정하였지만, 이 시기에 편찬된 평산읍지에는 자영 수공업자의 수가 430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 이 시기에 우정규는 경제야전에서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제각기 재물을 분담하고 고용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은점(銀店)을 경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 ① 공납 물품은 수공업자가 생산한 토산물을 직접 납부하였다.
- ② 청과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증가하여 은광 개발이 활발하였다.
- ③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여 담배 재배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나타났다.
- ④ 화폐의 주조가 늘어났으나,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황이 나타났다.
- ⑤ 자본력을 가진 상인 중에서 수공업에 투자하여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답: ①

* 조선 후기 경제상: 상공업의 발달

조선 후기의 농민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는 등 새로운 영농 방법을 추구하였고, 상품 작물(담배, 인삼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늘리려 하였다. 상인도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여 대자본을 가진 상인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수공업에 선대제 형식으로 투자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로 인해 생산도 활발해져 민간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상공업 활동이 활기를 띠었으며, 상업 도시가 출현할 수 있었다.

① 조선 후기는 공납이 대동법으로 인해 공인(貢人)을 통해서 납부됨

② 조선 후기에는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에는 거의 70 개소의 은광이 개발되었다.

④ 상공업의 발달은 화폐 유통도 활발케 하였고(상평통보), 일부가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화폐를 집적함으로써 인해 전황(시중 화폐 부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⑤ 조선 후기에 민간 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초기에는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17. 다음은 우리 나라 각 시기에 나타난 유학의 경향을 설명한 것이다. (가)~(라)를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3 점]

- (가) 전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유교가 불교에 대항하는 독립된 사상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 유학을 신봉하는 이들은 현세적인 도덕 이상주의를 내세워 불교적 세계관에 비판을 가하였다.
- (나) 지방에 근거를 둔 유학자들이 학문의 연구와 서원을 통한 후진의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제적인 학문보다는 사색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즐겨하였다.
- (다) 유교의 정치 이념은 도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 유교는 국가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로 생각되었으며, 국왕이나 귀족들은 정치가로서의 도덕적인 수양을 중시하였다. 또, 불교는 내세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여 서로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 (라) 신유학이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윤리를 중요시하는 면에서 수용되었으나, 점차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는 철학적인 국면이 발전되었다.

- ① (가)-(나)-(다)-(라) ② (가)-(다)-(라)-(나)
- ③ (다)-(가)-(나)-(라) ④ (다)-(라)-(가)-(나)
- ⑤ (라)-(가)-(다)-(나)

정답: ②

* 시기별 유학의 경향

(가) 신라중대(전제왕권): 신문왕 대에 전제왕권 확립과 함께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나) 조선 중기(사림의 발달): 16세기 지방에 근거를 둔 사림은 서원과 향약을 세워나갔다. 도덕성과 수신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인간 심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나가 이기 논쟁의 벌어지는 등 사색적적이고 이론적 경향을 보였다.

(다) 고려 초기(유교 정치이념 채택): 고려 초기 성종 대에 최승로를 통해 유교가 치국의 도(정치 이념 채택)로 불교는 수신의 도로 확립이 되었다.

(라) 고려 후기(성리학 수용):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전래되어 사상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분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종래 자구의 해석에 힘쓰던 한·당의 훈고학이나 사장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었다.

13. 다음은 조선 후기 어느 인물이 그린 작품의 발문 중의 일부이다. 이 발문과 관련된 그림은? [1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다. 소나무, 잣나무는 본래 사계절 내내 늘 잎이 지지 않는 것이다.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도 같은 소나무, 잣나무요, 추위가 닥친 후에도 여전히 같은 소나무, 잣나무다. 그런데도 성인(공자)께서는 특별히 추위가 닥친 이후에 그것을 칭찬하였다. 지금 그대가 나를 대하는 처신을 돌아해보면, 그 전이라고 더 잘 한 것도 없지만, 그 후라고 전만큼 못 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예전의 그대에 대해서는 따로 일컬을 것이 없지만, 그 후에 그대가 보여 준 태도는 역시 성인에게서도 일컬음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성인이 특별히 칭찬 것은 단지 추운 계절을 겪고도 다만 시들지 않는 나무의 굳센 절조(節操)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역시 추운 계절이라는 그 시절에 대하여 따로 마음에 느낀 점이 있었던 것이다.



정답: ①

*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세한도: 조선 후기의 서화가 김정희의 문인화.

작가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인품을 송백(松柏)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 답례로 그려준 그림이다.

그림은 수목과 마른 붓질 및 필획의 감각만으로 그려졌으며, 옆으로 긴 화면에는 집한 채와 주위에 송백 두 그루씩이 대칭을 이루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여백으로 되었다.

이처럼 극도로 생략 절제된 요소들은 모두 문인화의 특징으로, 작가는 직업 화가들의 인위적이며 허식적인 기교주의에 반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수법을 쓴 것 같다. 작가의 농축된 내면 세계에서 비롯된 필선과 먹빛이 풍기는 담백 아담한 분위기는 문인화가 지향한 사의(寫意)와 문기(文氣)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① 세한도(김정희)
- ② 이정의 '산수화첩' 12면 중 제 5엽(葉)
- ③ 정선의 '유연견남산도(悠然見南山圖)'
- ④ 안견의 '몽유도원도'
- ⑤ 강세황의 '영통동구도'(18c 중엽)

19. 다음 시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조선 시대에는 서울 부근의 이태원, 홍제원, 누원 등이 유명하였고, 동래의 온정원, 경기도의 장호원, 퇴계원, 광혜원, 충청도의 미륵원, 황해도와 사리원 등의 시설이 있었다.

- ① 공적 업무 수행자에게 숙소로 제공되었다.
- ② 원주전을 지급하여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 ③ 일부 시설은 빈민 구휼의 업무도 맡고 있었다.
- ④ 교통의 요충지에 대략 30리 정도마다 하나씩 설치되었다.
- ⑤ 17세기 이후 상공업과 장시 발달을 배경으로 번성하였다.

정답: ⑤

* 조선의 원(院): 조선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을 위해 건설한 숙박 시설

역원제(역참제): 역(驛)은 공문서의 전달과 관리의 왕래, 숙박 및 공물 진상 등의 관물 수송을 담당하던 곳으로 참(站)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다 1597년(선조 30) 통신만을 위주로 하는 파발을 두어서 변서(邊書)의 급한 전달을 임무로 하였다.

원(院)은 일반 여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종의 여관이였다. 그러나 임금이 지방을 순시하거나 피난길에 이용되기도 했으며, 각 도의 관찰사가 고을을 순행할 때 점심을 먹거나 마필을 교체하는 곳으로도 쓰였다. 또한 원은 민심을 파악하거나 고을 수령들에 관한 내사(內査) 자료를 얻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의 중앙집권화의 일환으로 설치됨(통치, 행정의 목적임)

⑤ 원(院)은 이미 조선 초에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공적 시스템으로서 조선 후기 상공업과 장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번성한 것은 아니다.

20. 다음은 조선 시대 사화와 관련된 사료이다. (가)~(라)의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그는 항적(項籍)이 의제(義帝)를 시해한 일에 가탁하여, 문자에 나타내어 선왕(先王)을 헐뜯었으니, 그 하늘에 넘실대는 악은 불사(不赦)의 죄에 해당하므로 대역죄로 논단하여 부관참시를 하였노라.

(나) 이파의 자손은 폐하여 서인으로 하고, 한명회, 심회, 정창손, 정인지, 김승경 등은 만일 종묘에 배향된 자가 있으면 내치라. 또, 이세좌의 아들, 사위, 아우로서 부쳐된 자는 폐하여 서인으로 하여 영구히 사판(仕版)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이 자기에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기의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고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후진을 이끌어 국문이 전도되고 조정을 그르치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라) 윤임은 화심(禍心)을 품고 오래도록 흉계를 쌓아 왔다. 처음에는 동궁(東宮)이 외롭다는 말을 주창하여 사림들 사이에 의심을 일으켰고, 중간에는 정유삼흉(丁酉三兇)의 무리와 결탁하여 국모를 해치려고 꾀하였고, 동궁에 불이 난 뒤에는 부도(不道)한 말을 많이 발설하여 사림들을 현란시켜 적정과 의심을 만들었다.

- ① (가)-(나)-(다)-(라) ② (가)-(라)-(나)-(다)
- ③ (나)-(다)-(가)-(라) ④ (나)-(다)-(라)-(가)
- ⑤ (다)-(라)-(가)-(나)

정답: ①

* 조선 중기 사화(土禍)

(가) **무오사화(1498)**: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를 제자인 김일손이 실록에 작성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세력이 문체 삼아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등의 사림파를 처형한 사건. 그 결과 향사례, 향음주례를 주관하던 사림들의 기구가 혁파되었고, 김종직 문인으로 구성된 영남사림이 대부분이 몰락함.

(나) **갑자사화(1504)**: 연산군의 모친인 폐비 윤씨 사건을 둘러싸고 궁중파(임사홍, 신수근)가 성종의 유지를 주장해 폐비복위를 반대한 잔존 사림(윤필상, 김굉필, 정여창)과 훈구파 중 부중파(한명회, 정창손) 등을 처형한 사건

(다) **기묘사화(1519)**: 중종 때에 진출한 조광조의 급진개혁(훈구파 위훈삭제, 현량과 실시 등)과 관련하여, 남곤, 심정 등의 훈구 세력이 ‘주초위왕’ 모략으로 조광조, 김정 등의 사림이 처형된 사건. 사림에 의해 추진된 소학 실천운동이 향약과 함께 한 때 폐지되었다.

(라) **을사사화(1545)**: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윤(윤원형)과 대윤(윤임) 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림이 가담하여 큰 피해를 받은 사건. 윤임과 정희 등, 박광우 등의 사림이 처형당하였다.

21. 다음 그림들의 화풍이 유행한 시기의 문화계 동향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실용품이기보다는 사치품으로 볼 수 있는 고려청자가 발달하였다.
- ②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간행되고 국한문 혼용체의 문장이 널리 보급되었다.
- ③ 문학에서는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나 사설시조 등의 작품이 쏟아져 나왔다.
- ④ 민중 의식의 양양이 자연스럽게 문학에도 반영되어 장편 서사시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나왔다.
- ⑤ 유교의 입장에서 사회 교화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서적들을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문화(18세기): 왼쪽: 정선의 '인왕제색도', 오른쪽: 김홍도의 '주막 풍경'

•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새 경향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이었고, 서예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글씨의 등장이었다. 진경 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으며,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문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는 문학의 저변이 서민층에까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① 고려 청자는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고(비색청자),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에 활용되었다. 상감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해 갔다.

② 유길준의 서유견문 간행(1895)

④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동명왕편 게재(1241)

⑤ 세종 때에는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이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었다(1431).

22. 다음 사료를 분석하여 당시 관료들의 사관을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점]

- 태조 원년 8월 조신의 단군(檀君)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箕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이니, 평양부에서 시제(時祭)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 태종 12년 6월 우리 나라에 기자가 있는 것은 중국에 요 임금이 있는 것과 같으니, 원컨대 기자 사당은 (중국) 조정에서 요임금을 제사하는 예에 의거하여 기자의 묘에 제사 지내기 바랍니다.
- 태종 13년 11월 단군과 기자에게는 '국왕'이라 일컫고, 고려 태조는 '조선 국왕'이라 일컫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단군과 기자에게도 '조선 국왕'이라고 일컫도록 허락하소서. 〈조선왕조실록〉

<보기>

- ㄱ. 기자의 동래(東來)로 우리 나라에서 유교적 예의의 교화가 시작되었다고 인식하였다.
- 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밝히 단군-조선-기자-조선-삼한-삼국-고려-조선으로 체계화하였다.
- ㄷ. 우리 역사의 유구성과 정통성을 교화지군(教化之君)인 단군 숭배를 통해 강조하면서 문화적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 ㄹ. 조선을 독립적인 개국 시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과 동등한 역사 편년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여 대외적인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초기의 민족적, 유교적 사관

조선 초기에는 조선이라는 국호에서 보듯이 평양의 단군사(檀君祠)나 구월산의 삼성사(三聖祠) 등에서 단군을 모시는 국가적 행사가 치러져서 단군을 민족의 첫 임금으로 인식하였고, 아울러서 유교 국가이므로 은나라의 성인으로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든 기자가 중국에서 동래(東來)하여 우리나라로 예의범절과 문화를 전해준 교화의 국왕으로 인식하였다.

㉠ 조선 후기 이익은 단군이 나라의 시조이며 기자조선이 이를 계승했고 이것이 다시 마한으로 이어졌으므로 마한이 우리나라의 정통이라고 파악했다. 안정복은 이익의 사상을 이어 받아 <동사강목> 등을 통해 전통적 화이론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한국의 독자적 정통론으로서 삼한 정통론을 주장하였다.

㉡ 교화지군은 단군이 아닌 기자로 인식하고 있음

㉢ 단군은 중국의 요 임금과 동시대의 군주요(동등한 편년), 기자는 요 임금과 동급의 성인(聖人)으로 파악하여 조선 국왕이라 부르는, 중국과 대등한 역사인식을 볼 수 있다

23. 다음 자료는 극화 학습을 위해 준비한 대본이다. (가)~(라)에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어울리는 것을 고른 것은? [2점]

제목 : 거사 전야(舉事前夜)

소재 : 만적의 난 일 시 : 1198년 어느 날

장 소 : 최충현의 집 문간채

(문간채 방에 만적과 그의 친구 2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가) 만 적 : 어서들 들게, 일이 내 계획대로 잘 성사된다면, 곧 우리가 중방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게 될 걸세.

(나) 노비1 : 맞아,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도 이제는 삼베옷을 벗고 비단옷을 입게 되겠지.

(다) 노비2 : 그렇고말고, 지난번에 대막리지를 지낸 이의민도 원래는 우리 같은 천인 출신이 아니었던가?

(라) 만 적 : 부디 입조심들 하게, 이렇게 한평생 끼니마다 그저 옥수수에 된장국으로 때우지 않으려면 말일세.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①

* 만적의 난(1198년) 당시의 시대상(무신정권)

무신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예: 이의민).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에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최충현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王侯將相 寧有種乎: 왕후장상이 어찌 따로 씨앗이 있겠느냐?)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

(가) 중방은 무신 정권의 권력 기구이다. 최씨 정권의 권력 기구인 교정도감은 1209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시기상 맞는 진술이다.

(다) 대막리지는 고구려의 비상 대권 집권자로서 연개소문만이 실제로 군력을 행사하였다.

(라) 옥수수는 조선 후기에 전래된 것이므로 시기상 맞지 않다.

24.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이 책은 태종 때 일본에서 코끼리가 건너온 사실과 정조가 안경을 쓴 사실 등 조선 시대 여러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산군 때 왕을 비판하다가 유배를 간 배우 공길과 중종 때 왕실의 의녀로 활약한 장금이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의 모티프가 되어 최근 최고의 인기 문화 상품이 되기도 했다. 역사 기록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통 기록들이 현대적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 ① 조선 태조부터 제 25대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 ② 왕이 죽으면 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시정기 등을 토대로 실록청에서 작성하였다.
- ③ 임진왜란 전에는 춘추관 외에도 충주, 성주, 전주에 각각 사고를 두어 보관하였다.
- ④ 고려 시대에는 편찬되지 않았으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 편찬 관례가 정착되었다.
- ⑤ 세도 정권 시기에 분량이 축소되어 다양성을 잃게 되고, 그 내용도 빈약하게 되었다.

정답: ④

*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하여

조선 왕조 실록: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 실록의 편찬은 대개 전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의 즉위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춘추관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에서 담당하였다. '시정기'와 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초', 각사 '등록', '승정원일기'가 실록편찬의 기본 자료이었고, 문집·일기·야사류 등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비변사등록'과 '일성록'도 사용되었다.

③ 조선 전기에는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 등 4곳에 사고(史庫)가 있었으나, 임난 이후에는 춘추관·묘향산·태백산·오대산·강화도·마리산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여 실록을 보관하였다

④ 실록은 고려시대에도 편찬되었음

* **고려왕조 실록:**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역대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실록을 편찬하였다. 1390년(공양왕 2년)에 충주로 옮겼다.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참고하였고 그 때 한양의 춘추관사고에 옮겨져 보존되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 되었다.

25. 다음은 조선 시대 중앙 정치 기구의 담당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시정(時政)을 논의하고, 백관(百官)을 규찰하며,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일 등을 맡아 보았다.
 (나) 정 3품 아문이지만, 그 직계상 의정부, 6조와 함께 국정의 중심 기관이 되었다. 관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고, 때로는 문무반의 인사 등 국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 보 기 > —
 가. (가)는 고려 시대에는 추부에 속하였다.
 나. (가)의 관원은 청요직으로 진방을 받았다.
 다. (나)의 관원은 후임자의 자천권이 있었다.
 라. (나)의 관원은 고려 때 승선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④

* 조선의 중앙 정치기구 사헌부와 승정원

(가) **사헌부**: 언론 3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로 백관을 규찰하였고, 사간원과 함께 양사로서 서경.간쟁.봉박의 대간 기능을 담당. 그 외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의 기능도 갖었다.

(나) **승정원**: 왕명 출납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왕의 비서실의 역할을 하여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기구이다. 또한 승정원 일기는 실록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 추부는 중추원을 말하며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2품 이상 고위직인 **추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3품 이하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요직(淸要職)이란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임무를 가진 대관과 국왕을 간쟁.봉박하는 임무를 가진 간관을 합쳐 부른 말로 말 그대로 깨끗함을 요구하여 대간이라고 불리웠다.

㉢ 후임자 자천권은 인사권을 갖는 요직인 이조 전랑에게 있었다

㉣ 고려의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직위는 중추원의 3품 이하 관료인 **승선**이다

26. 다음 자료가 편찬된 시기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우리 주상 전하가 근신(近臣)에게 …… 명령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 편찬이 끝나자 ‘삼강행실도’라는 이름을 내리고 주자소에서 간행하여 영구히 전하게 하였다. …… 가만히 생각건대, 임금과 아버지와 부부의 인륜인 충, 효, 절의의 도는 하늘이 내려준 천성으로서 사람마다 같은 것이니, 천지의 시작과 더불어 생겨났고 천지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 < 보기 > —

ㄱ. 모범적인 유교 정치 구현에 힘썼다.
 ㄴ. 직전법 체제에서 관수관급제가 도입되었다.
 ㄷ. 폐도 정치가 시행되고 부국강병에 주력하였다.
 ㄹ.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되어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초기(15C) 세종의 유교통치: 삼강행실도 편찬(유교 정치)

•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다. 먼저, 궁중 안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 집현전 학사를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 뒤이어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잡게 하였다.

• 세종은 왕도 정치를 내세워 유교적 민본 사상을 실현하려 하였다. 유능한 인재를 널리 발굴하였으며, 청백리 재상을 등용하여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 직전법(세조, 1466), 관수관급제(성종, 1470)

㉡ 폐도(위력에 의한 통치)가 아닌 왕도 정치(도덕 정치) 추구

27. 다음은 어느 궁궐의 문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이 궁궐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6월 초 수리에 들어간 이 궁의 대한문은 일제 침략과 관련해 그 이름에 관한 오해에 시달려 왔다.

○○○ 교수는 …… ‘경운궁중건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의 기록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들을 일소했다. 의궤의 한 구절이 “황제는 천명(天命)을 받아 유신(維新)을 도모하여 법전인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시고, 다시 대한정문(大漢正門)을 세우셨다.”라며 대한문의 의미를 밝혀 놓았다. 그는 “하늘에 제를 올리는 일은 황제만이 할 수 있다.”라며 “대한문은 본디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여 하늘을 향해 제를 올렸던 환(圓)구단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큰 하늘을 떠받든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했다. <○○일보, 2004. 6. 22.>

— < 보기 > —

- ㄱ. 1860년대 흥선 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중건하였다.
- ㄴ. 1895년에 을미사변으로 명성 황후가 시해되었다.
- ㄷ. 18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옮겨 와 국정을 처리하였다.
- ㄹ. 1946년에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조선의 궁궐 경운궁(덕수궁)

본래 정궁이 아니고 아관파천(1896)에서 고종이 이곳으로 환궁한 이후(1897),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자리매김하였다(대한문, 원구단). 순종(창덕궁)에게 양위한 후 고종은 이곳에서 칩거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미·소 공동 위원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 ㉠ 경북궁
- ㉡ 경북궁 후원 옥호루

<조선의 5대 궁궐: 정궁+ 이궁>

- ① **경복궁**: 세종로 소재. 조선왕조의 정궁(正宮)으로 1395년(태조 4)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868년(고종 4) 흥선대원군이 중건했다.
- ② **창덕궁**: 와룡동 소재. 1405년(태종 5) 창건된 것으로 조선 왕조의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1996년 세계문화유산 지정)
- ③ **창경궁**: 1483년(성종 14) 건립. 종로구 와룡동 소재. 일제때 동물·놀이공원으로 쓰이는 수모를 겪음
- ④ **덕수궁(경운궁)**: 정동 소재. 대한제국의 정궁. 한일의정서와 을사조약이 체결된 비극적인 장소
- ⑤ **경희궁**: 1617년(광해군 9) 98채로 건립되었으나 현재 3채만 남겨짐

<조선의 행궁(行宮)>

남한산성내 광주부 행궁(이하 **남한행궁**), 북한산성내 양주행궁(이하 **북한행궁**), 강화도의 **강화도행궁**, 온양의 **온양행궁**, 전주의 **전주행궁**, 그리고 정조대의 과천의 **과천행궁**, 시흥의 **시흥행궁**, 안양의 **안양행궁**, 수원부의 **화성행궁**

23. 다음 (가)에 들어갈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점]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명군(明君)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써 더욱 백성의 일에 마음을 두셨다. 오방(五方)의 풍토가 다르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있어 고서(古書)의 내용과 맞지 않음을 아시고, 각 도 감사에게 명하여 주와 현의 늙은 농부들이 경험한 바를 모두 들어 올리라 하였다. 중 복됨이 없는 간결한 내용을 한 편의 책으로 엮었으니, 이름하여 (가)이라.

< 보 기 >

- ㄱ. 조선 전기의 대표적 농서로 영농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 ㄴ. 우리 나라 기후 풍토에 알맞은 농법을 처음 정리한 농서였다.
- ㄷ. 농업과 농촌에 필요한 것을 망라한 농촌 생활 백과사전이었다.
- ㄹ. 당시 남부 지방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앙법을 처음 소개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조선 초기(세종)의 농법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직설(1429), 금양잡록 등 농서를 간행, 보급하였다. 특히, 농사직설은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모내기는 봄가뭄에 따른 수리 문제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 쟁기, 낫, 호미 등 농기구도 개량되었다. 목화 재배도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약초와 과수 재배 등이 확대되었다.

㉔ 농업 백과사전: 농가집성(신속, 1655), 조선 전기의 농사직설의 증보 내용과 금양잡록이 수록되어있음

29. 다음 그림에 제시된 건축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보기 >

ㄱ. 정조 개혁 정치의 산물로, 축성 방법에는 실학 사상이 반영되었다.
 ㄴ. 행궁의 건축물들은 오늘날까지 원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ㄷ. 성곽은 벽돌과 석재를 섞어 축성하고 군사적 방어 기능을 강화하였다.
 ㄹ. 성곽의 팔달문, 장안문, 창룡문, 화서문은 모두 같은 크기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수원성(화성)

수원성 (화성): 정조는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조 때의 문화적인 역량을 집약시켜 새롭게 만든 화성은 이전의 성곽과는 달리,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겸한 성곽 시설로, 주위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평상시의 생활과 경제적 터전까지 조화시킨 종합적인 도시 계획 아래 건설되었다.

㉠ 실학자 정약용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정약용은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도 설계하였다.

㉡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된 수원성은 1975년부터 약 4년 동안 복원되었다.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본래의 모습대로 거의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화강석과 벽돌을 함께 축성의 재료로 사용한 전석교축의 공법을 써서 축성하였기에 견고한 방어를 할 수 있다.

㉣ 그림에서 보듯이 동문인 창룡문과, 서문인 화서문은 남문인 팔달문, 북문인 장안문에 비해 작다

30.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곳'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최익현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창의토직소(倡義討賊疏)'를 올려 의거의 심경을 토로하고 8도 사민(士民)에게 포고문을 내어 항일 투쟁을 호소하였다. 그는 1906년 74세의 고령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체포되어 이 곳에 유배되었다. 그는 직이 주는 음식물을 거절하다가 결국 이 곳에서 서거하였다. 1986년 한국인과 일본인이 힘을 합쳐 여기에 순국비를 세웠다.

- < 보기 >
- ㄱ. 왜구의 근거지로 세종 때 이종무가 토벌하였다.
 - ㄴ. 통신사의 경유지로 이들이 묵던 숙소가 남아 있다.
 - ㄷ.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 ㄹ. 삼포 개항 후, 에도 시대 말기까지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 쓰시마섬(대마도)

대마도는 역사시대부터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 왔다. 조선 때에는 대마도주가 조선 국왕의 임명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평화시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을 독점(삼포왜란~에도 막부 말기)하였으며, 전쟁시에는 두 나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일본 수군의 근거지)을 하기도 했다.

고려 우왕 9년(1389)에는 박위장군이 대마도를 토벌하였으며 1419년 6월 조선의 세종대왕이 총사령관 이종무의 지휘아래 군사 1만 7285명을 동원하여 대마도를 토벌(∴ 왜구의 근거지)하였다.

조선의 국왕이 관직을 내려 무역을 허락하고 그들을 조선의 영향력아래 두기 시작하였다. 그후에도 조선은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오래 유지했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일본의 영토로 대마도가 편입되면서 일본의 관리가 대마도를 통치하게 된다

㉠ 통신사의 여정은 한양을 출발하여 부산까지는 육로로 간 뒤, 부산에서부터는 대마도주의 안내를 받아 해로를 이용하여 대마도를 거쳐 시모노세키를 통과하여 일본 각 번의 향응을 받으며 오사카의 요도우라에 상륙하였다. 그 뒤 육로로 교토로 갔다. 조선 전기에는 이곳에 소군(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교토가 종점이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장군이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가 도쿄가 되었다.

3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19 세기의 학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점]

- 개성 지방의 향유(鄕儒)였지만, 향촌 사회를 떠나 서울로 진출하였다.
- 유교적 이념과 관습 및 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서양의 과학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 전통 철리학과 북학 사상을 수용한 토대 위에 서학의 지식도 포괄하여 새로운 학문 체계로서 기학(氣學)을 제시하였다.

— < 보기 —

- ㄱ. 실학 사상과 개화 사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다고 평가된다.
- ㄴ. 동도서기론의 선구적 주장자이며 경험을 통한 실전을 강조하였다.
- ㄷ. 점진적 변통을 추구한 그의 개혁론은 개화파의 사상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ㄹ. 세도가 및 경화거족(京華巨族)들과 밀착되어 세도 정치의 폐단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경험주의 인식론자 최한기(1803~1877)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확립하여 근대적 합리주의와 개화사상을 싹트게 했다.

수많은 저작(대표작: 명남루총서)을 통해 경험주의적 인식론(認識論)을 확립하여 일체의 선험적(先驗的) 이론이나 학설을 배격하고 사물을 수학적·실증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 한국 사상사에 근대적 합리주의를 싹트게 했다.

이런 기초 위에서 **진보적 역사관을 수립하고 현실 문제를 비판, 과감한 개혁을 부르짖었으며**, 외국과의 대등한 교류를 주장하는 등 **실학과 학자들의 전통을 계승하여**, 뒤이어 등장하는 개화사상가들의 선구가 되었다

㉠ 동도서기론은 1881년 광기략의 “서양이라고 하더라도 기계 기술이나 농서가 진실로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할 것이요, 그 사람으로 해서 그들의 좋은 법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라며 서양 문물을 가려서 수용하자는 채서(採西)의 주장이 담긴 상소문과, 1882년 윤선학의 “군신·부자·부부·붕우·장유의 윤리는 하늘이 만들어 성품에 부여한 것으로 온 천지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치로 위에 있어서 도(道)가 됩니다. 백성을 편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배, 수레, 병기, 농기는 밖에 나타나 기(器)가 됩니다. 신이 변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기(器)이지 도(道)는 아닙니다”라는 상소문이 유명하다

㉡ 최한기는 세도가와 관련이 없음

32. 다음과 같은 수취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새로운 제도의 납세액은? [1점]

○ 선조 6년에 유성룡은 “지금 전토를 많이 가진 자는 모두 호세가로서 공납을 거부하는 무리들이고, 일반 백성이 공부를 바치는 전토는 지극히 적다.”라고 하여 호세가에 의한 토지 점령 현상과 그에 따른 공부 부담의 불균등을 지적하였다.

○ 방납의 비리는 16세기 내내 심해져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전 사회의 경제 체제 속에 구조적으로 그 틀을 확고히 하여 나갔다. 따라서, 날로 만연하는 방납의 폐단을 방지해 둘 수 없었다.

- ① 1결당 미곡 4두 ② 1결당 결작 2두
- ③ 1결당 미곡 12두 ④ 인정(人丁)당 1필
- ⑤ 인정(人丁)당 2필

정답: ③

* 조선 후기 공납의 문제점 해결책 대동법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짐짐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 ① 영정법
- ② 균역법의 보충책 중 하나
- ④ 균역법의 내용
- ⑤ 군포제의 내용

33.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지금 해상공국을 설치함을 특별히 임금님께서 이들을 가엾게 보시고 보호하는 것이니, 그 감사하고 축하함이 과연 어떠하리오. 더욱 2만 냥의 돈을 내려주시면서 좌상과 우상에게 반씩 나누어 8도의 경비에 쓰도록 하여 임금의 은혜와 혜택을 고르게 받도록 하시었다.

우리 상민은 오직 임금님의 뜻을 우러러 받들어 6천 냥은 좌우상대정에 주고, 나머지 1만4천 냥은 각 도별로 나누어서 이를 밑천으로 삼고 이자를 늘려 좌우상대로 하여금 이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구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 < 보 기 —

- ㄱ.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 방법을 사용하였다.
- ㄴ. 일제 강점 이후 더욱 강력한 조직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 ㄷ. 이들 중에서 대다수는 상업 자본을 축적하여 상회사를 설립하였다.
- ㄹ. 2 개의 별도 조직을 갖추었으나, 해상공국을 만들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 ㅁ. 개항 이전에도 정부의 승인으로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상업 활동을 하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②

* 보부상(보상+ 부상)

초기에는 보상과 부상이 다른 조직체계를 가지고 발달하였으나 1883년 해상공국을 설치하며 양 조직을 통합하였고(좌사:부상, 우사:보상), 이후 상리국(1885), 황국중앙총상회(1897)에 속하였다가 황국협회(1898)로 발전하여 독립협회 탄압에 앞장섰고, 이후 진명회(1904, 공진회로 개칭) 등에 이속되었다

㉠ 지방 장시를 주 무대로 활동한 이들은 동지적 결합이 강하여 사발통문(사발을 엮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은 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수단 사용하였다.

㉡ 개항기 초기 일본의 거류지무역으로 중간 이익을 보았으나, 임오군란(1882) 이후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로 시전 상인들과 개항장의 객주, 여각 및 보부상이 큰 타격을 받았다. 보부상은 황실과의 관계로 인하여 대한제국기에도 조직체를 갖추었으나, 상회사사로 발전한 객주와는 달리 황실에 대한 충성적 태도로 인하여 일진회와 대항하고 일제의 탄압을 받다가 공진회를 끝으로 1905년 해산되었다.

㉢ 임오군란(1882)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확대에 대항하여 객주들은 동업 조합이나 상회사를 설립하여 상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대에 평양의 대동상회와 서울의 장통상회를 비롯한 다수의 상회사들이 설립되었다.

㉣ 보부상들은 이성계를 지원하여 조선을 건국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그 공이 후에 인정 받아 최초의 조직인 임방(任房)이 형성되었다.

34.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어느 단체의 선언문이다. 이 단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죽여 버리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현재 조선 민족은 오직 민족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 민족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 '외나무다리 위'에 선 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족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

<보기>

- ㄱ. 위의 선언문은 이 단체의 부탁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이다.
- ㄴ.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 등을 주도하였다.
- ㄷ.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 산하 단체로 조직되었다.
- ㄹ.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체의 뜻을 실천에 옮긴다는 등의 활동 지침을 담은 '공약 10조'와 '암살 대상, 파괴 대상'을 채택하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 조선혁명선언(1923)과 의열단

조선혁명선언: 신채호는 1923년 1월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에서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시하였다. 신채호는 일제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는 전술을 내걸었다.

의열단: 3·1 운동 이후 김원봉 등은 일제의 지배에 맞서 싸울 강력한 조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1919). 의열단은 조선 총독부 고관, 매국노, 친일파 등의 처단과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각 경찰서 등 식민 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단원들은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1920: 최수봉),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1921: 김익상) 등 모두 의열단과 관련이 있으며, 그 외에 나석주(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김상옥(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등이 유명하다.

㉡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과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 특히 윤봉길의 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35. 다음은 인조가 가족과 고적 답사를 가서 찍은 사진이다. 이 지역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2점]



- ① 청동기 시대의 저석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 ② 19세기 후반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격전지였다.
- ③ 조선조 인조는 후금의 공격을 피해 100일간 피신하였다.
- ④ 고려 시대 중요한 문화 업적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 ⑤ 몽골 침입 때 천도하였으며, 식량 확보를 위해 간척 사업을 벌였다.

정답: ④

* 강화도의 역사

왼쪽 사진: 광성 돈대(신미양요 격전지)

오른쪽 사진: 마니산 참성대

① 강화도는 고인돌(북방식 고인돌)군이 유명(하점면 부근리 등)

② 병인양요(1866, 정족산성) 신미양요(1871, 광성보)의 격전지로 유명

③ 정묘호란(1627)때 인조의 피신지(인조를 비롯한 조신들은 강화로,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

* 병자호란(1636) 당시에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왕자들과 비빈은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④ 몽골이 침입 때 강화 천도와 간척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④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된 곳은 충북 청주 흥덕사이며 백운화상이 간행하였다(1377)

36. 대한 제국 시기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단체의 활동이 아닌 것은? [2 점]

하나님이 세계 인생을 낳으실 때에 사나이나 여편네나 사람은 다 한가지라. 여자도 남자의 학문을 교육받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권을 가져 인생에 당한 사업을 다 각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거늘, …… 총명이 한갓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또한 총명한 재질인즉, 여자도 학문과 동등권을 가져 남자를 더욱 이롭게 도울지라. 그리 한다면, 남녀 간에 교락을 한가지로 하고 사업을 같이 하며 생애를 고르게 하여 나라가 더 부강하고 집안이 태평할 터이니, 그럴 지경이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신문, 1898년 1월 4일자 논설〉

- ① 남녀 차별 제도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② 축첩을 인정하는 결혼 제도의 비윤리성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 ③ 과부 재가 허용, 조혼 금지 등의 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 ④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순성 여학교 설립 운동을 지원하였다.
- ⑤ 남녀 평등이 국가 부강을 가져온다며 남녀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정답: ③

* 독립협회(1896~1898)의 여권 신장 강조

출전: 독립협회의 독립신문(1896~1899, 민중계몽)의 여권신장을 강조한 논설

독립 협회는 민중 계몽 운동을 전개하여 민중의 민권 의식과 평등 의식이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많은 사람이 독립 신문을 구독하고,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독립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애국 계몽 운동 단체나 학회, 언론 활동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의식, 민권 의식, 평등 의식이 높아졌다. 갑오개혁으로 비록 신분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신분 의식은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③ 이미 과부 재가, 조혼 금지 등등의 신분적 차별은 갑오개혁(1894)년 때에 법적으로 없어지게 됨

④ 최초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 설립을 주도한 ‘찬양회’ 는 여학교 설립운동 이외에도 독립협회가 이끈 만민공동회의 자유민권 운동에도 참가했다

37.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제2조 조선 상민이 중국에 있어 이미 연안 지방에서 소유한 일체 재산, 범죄 등 사건은 피고, 원고가 어떤 국민인 을 막론하고 모두 중국 지방관으로 하여금 법문을 접수하여 심판하고, 아울러 조선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여 비치하게 한다.

제4조 조선 상민으로서 베이징에 주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의례 교역을 준허하고, 또 중국 상민은 조선에 입국하여 양화진, 한성에서 좌매 행상하는 것을 준허하며, 각색 물품을 집합하여 내지에 반입하고 점포에 진열, 판매하는 것을 불허한다.

< 보기 >

- ㄱ. 청 상인들의 한성 진출로 한성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 ㄴ. 청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측시키려고 막대한 자금을 차관하도록 강요하였다.
- ㄷ. 청이 조선에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자국산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 ㄹ. 조선에 대한 청국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됨과 동시에, 조선과 청의 무역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閔氏)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청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청의 교역량 증가).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중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한성 상인에게 큰 타격).

이밖에도 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청나라 기선의 조선 파견권, 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 인정 등 청나라의 특권으로 일관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청나라에 의존한 민씨 정권에 의해 체결된 이 장정은 이후에 체결되는 통상조약, 특히 조선과 일본 및 영국과의 조약 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의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차관제공에 의한 경제적 예측은 일본이 감행하였다.

㉡ 일본, 청은 초기 대조선 무역에서 영국산 면직물을 중계 무역하는 형태이다

38. 다음 조약 체결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사실은? [1점]

-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동감의 지도를 받을 것.
-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동감의 승인을 거칠 것.
-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명은 동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 제5조 한국 정부는 동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용병할 것.
- 제6조 한국 정부는 동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 제7조 1904년 8월 22일에 조인한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

- ①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되었다.
- ② 시위대와 진위대가 강제 해산되었다.
- ③ 일본이 재정, 외교 등 각 부에 고문을 파견하였다.
- ④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되었다.
- ⑤ 허위가 이끄는 선봉 부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였다.

정답: ④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

일제는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자, 이를 빌미로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1907).

① 가쓰라-태프트(일-미) 밀약은 이후 을사조약으로 연결됨(1905)

② 친위대-진위대 해산은 한일신협약의 내용 중 하나인 군대해산을 말하며 직접적 배경이 아닌 결과이다

③ 1차 한일협약(1904)을 말하며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 외교고문에는 미국인 스티븐슨이 임명되었다.

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는 정미의병(1907)과 관련된 서울진공작전(1908)을 말하며 지휘부의 흠어짐으로 실패하였다

39. 다음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2점]

그는 개화 선각자이자 한국 최초의 국비 미국 유학생이었다. 1883년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갔다가 이 해 9월 더머 아카데미(Dummer Academy)에 입학했다. 그의 나이 28세 때였다. 영어를 배운 지 7개월 만에 영문 편지를 쓸 정도로 탁월한 어학 능력을 지녔던 그는 이 곳을 마친 다음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다. 그러나 감신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학업을 중단하고 1885년 6월에 귀국해 서양 문물을 소개한 국한문 혼용체의 기행문을 써서 정치, 경제, 사회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외무 참의가 되었고, 뒤이어 형조·이조 참의를 역임한 뒤 내무 대신이 됐지만, 아관파천으로 내각이 붕괴되자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가 학교를 떠난 지 118년 만인 오는 1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시 더머 아카데미 교정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된다. <○○일보, 2003. 4.>

- ① 1885년 무렵에 한반도 증립화론을 제기하였다.
- ② 보빙사의 일행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유학하였다.
- ③ 서유견문을 저술하여 미국과 유럽 문물을 소개하였다.
- ④ 미국에서 귀국 직후 민씨 정권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주도하였다.
- ⑤ 조사 시찰단(신사 유람단)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사사하였다.

정답: ④

* 개화 사상가 유길준에 대하여

유길준(1856~1914): 한말의 개화운동가이며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였다. 귀국후 7년간 감금되어 <서유견문>을 집필하였다. 아관파천으로 친일정권이 붕괴되자 일본으로 12년간 망명하였다. 순종황제의 특사로 귀국한 뒤, 국민교육과 계몽사업에 헌신하였다

① 거문도 사건(1885)이 있을 무렵 독일영사 부들러와 함께 한반도증립화론을 주장하였다.

②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간 후에 국비유학생으로 공부하였다

③ 미국에서 귀국하는 과정에 유럽 각국을 들르며 그 기행문인 '서유견문'을 저술하였으며 '서유견문'을 통하여 서양의 근대문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 '실상개화(實狀開化)'를 주장하였으며,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개혁론을 전개하여 갑오개혁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④ 그가 주장하고 실천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광복'에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그가 우리나라에 가장 이상적인 정체라고 주장한 입헌군주제를 실현시켜 우리나라를 문명국 대열에 올려놓는 데 있었다.

따라서 친청 보수노선의 민씨정권과는 노선이 다르다

⑤ 1881년(고종 18) 민영익의 천거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원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이때 신학문을 익히기 위한 유학의 목적이 있었다. 후쿠자와가 운영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여 개화사상을 두루 섭렵하였다

40. 다음은 19세기 말 어느 농민이 보고 들은 일들을 적은 가상의 글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1점]

가. "군인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사람 먹는 쌀에 모래를 섞어서 주느냐!"
 나. "전봉준 장군이 있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 따를 테다. 가자! 황토현으로!"
 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관에 피난을 가다니! 나라의 위신이 말이 아니구나."
 라.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김옥균이 일본에 빌붙어 우리 임금을 위태롭게 했다. 빌붙을 데가 없어 일본이나? 이 몹쓸 매국노!"

- ① 가-나-다-라 ② 가-라-나-다
 ③ 나-다-라-가 ④ 라-다-가-나
 ⑤ 라-가-다-나

정답: ②

* 개항 이후 주요 정치 사건

㉠ 임오군란(1882)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구식 군인, 하층민 등에 의해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 동학농민운동(1894)

동학 농민 운동은 농민층이 전통적 지배 체제에 반대하는 개혁 정치를 요구하고, 외세의 침략을 자주적으로 물리치려 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봉건적, 반침략적 민족 운동이었다. 비록 당시의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이들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 아관파천(1896~1897)

일본의 침략과 급진적인 갑오·을미개혁의 실시로 대부분의 국민 사이에 반일 정서가 확산되었다. 또, 고종은 왕권을 제약하려는 개화 세력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을미사변 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아관 파천, 1896), 개화파 정부는 무너졌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 철회, 의병해산 권고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 갑신정변(1884)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41. 다음은 1950년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 개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2점]

- ㄱ.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 ㄴ. 지주의 토지, 가옥, 임야가 분배의 대상이 되었다.
- ㄷ. 정부가 수매한 농경지를 직접 경작 농민에게 3정보 한도로 분배하였다.
- ㄹ.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수립되어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남한의 농지개혁 (1949년 입법, 1950~1957 시행)

- 1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을 3정보로 제한
- 3정보 이상의 농지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등을 정부가 유상 매수 → 농민에 유상 분배 유상 매수, 유상 분배)

※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개혁 착수(1950) → 개혁 완료(1957)

<농지 개혁의 결과와 한계>

-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기여
-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 부담(되팔고 소작 농화)
- 유상 매수를 위해 발행한 지가(地價) 증권이 현금화가 잘 안됨 →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변신에 어려움

㉠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

㉡ 농지개혁은 개혁대상에서 임야와 산림을 제외함으로써, 기존 지주들의 기득권이 어느 정도 보장

㉢ 3정보 이상의 땅을 가진 지주에게서 정부가 땅을 구매하여, 땅값을 한해 수확량의 150%로 책정하여 농민에게 5년 동안 매년 수확량의 30%씩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한계점)

㉣ 그러나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수립된 것은 의의가 있음

42. 일제 강점기에 다음 활동을 한 인물의 8·15 광복 후 행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비타협 민족주의 노선을 고수하였다.
- 신간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신간회 해소에 반대하였다.
- 민족사 연구에 정진하고 정인보와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를 간행하였다.

— < 보 기 > —

- ㄱ.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앞장서서 노력하였다.
- ㄴ. 신민족주의 이념을 국가 건설 운동의 지표로 내세웠다.
- ㄷ. 지주 중심의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한 정당을 창설하였다.
- ㄹ.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에 참여하고 미군정의 민정 장관을 역임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안재홍(1891~1965)

안재홍: 호는 민세. 역사학자(신민족주의)로서 <조선상고사감(朝鮮上古史鑑)>과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이 유명하며, 1930년대에 정인보 등과 함께 한국학 운동을 주도하며 <여유당전집>을 간행하였다. 언론인(시대일보, 조선일보, 한성일보), 물산장려회 활동(이사), 신간회 활동(총무) 등 다방면의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해방 직후 중도 우파의 주요 인물로서 여운형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곧 탈퇴하여 국민당의 당수로 활동하였고,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여 남조선과도입법위원, 미군정 민정장관 등을 역임하며 정부 수립에 노력하였으나 6.25 전쟁 중 납북되어 사망하였다,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성취하여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사회계층 상호간의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외적으로는 타민족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민족사관을 주장

㉠ 이승만이 주도하였다(정읍발언:1946.6)

㉡ 한민당 세력을 말함(송진우, 김성수 주도, 후일 민주당으로 발전)

43. 다음 글의 밑줄 친 '영국 군인들'이 이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시기의 국제 정세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 섬의 목장에서 목동 노릇을 했던 92세의 김윤삼 옹을 찾아본 것은 1960년의 일이다. 옹은 어린 목동 시절에 외웠던 영어 몇 마디를 잊지 않고 있었다. 또, 구레나룻이 무성한 목장 담장 수병으로부터 '요오-요오 요오이-'로 시작하는 소 모으는 요들송도 배웠다면서 불러 주기도 했다. 영국 군인들은 내외가 짝뿔하여 섬 부녀자를 만나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외면하고 서 있었으며, 동네 샘에서 물 한 바가지 퍼 마시고는 마신 바가지 수만큼 동전을 놓고 갔다 한다.

- < 보기 >
- ㄱ. 영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
 - ㄴ.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었다.
 - ㄷ. 영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 ㄹ.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일본의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거문도 사건(1885~1887)

갑신정변 이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면서 국제적 긴장이 높아졌다.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는 대한 해협이 문호에 위치한 섬으로 한·일 양국의 해상 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영국기를 게양하고 포대를 구축하며 수뢰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이 이를 핑계로 조선에 파병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군이 철수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영국군은 18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났다.

거문도 사건 직전 열강들의 대립으로 한반도가 국제 분쟁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 중립화를 조선에 건의하였다. 한편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길준도 조선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2차 영일동맹(1905)
- ㉡ 삼국 간섭(1895)

44. 다음 사료를 읽고, 왕건이 호족을 통합하려고 취한 조치에 대해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2점]

• 王順式은 명주 사람으로 출신 지역의 장군으로 있었다. …… 그는 아들 長命을 왕건에게 보내어 병졸 600인을 거느리고 숙위케 하였으며, 후에 자제와 더불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협력할 뜻을 보이니, 태조가 王氏 姓을 하사하고 대광의 벼슬을 내렸다.
 <고려사 권 92, 열전 5, 王順式>

• 신라 말에 이르러 晋火縣의 金剛城將軍 皇甫能長이 고려 태조가 勃興하는 것을 보고 천명과 인심이 돌아갈 바를 알았다. 드디어 무리를 들어 助順하니, 태조가 기뻐하여 佐丞을 제수하고 能長의 출신지인 崙峯 등 4현을 합하여 永州라 하였다. 이것이 土姓 皇甫氏가 시작된 연유이다.
 <경상도지리지, 安東道 永川郡>

* 고려 왕건의 호족통합 정책 (자료: 사성(賜姓) 정책)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을 관리로 등용하였다.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다. 또,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활용하였다.

즉 태조는 자신에게 협력하는 호족들에게 자신의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성과 벼슬을 주는 등 호족 회유 정책을 시행하였다.

45. 다음 글의 밑줄 친 '기회주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50 자 이내로 서술하십시오. [3 점]

1927년 2월에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계가 참여하여 조직한 신간회는 정치적·경제적 각성, 민족의 단결, 기회주의 배격 등을 내세웠다.

* 신간회(1927~1931)의 타협적 민주주의 배격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자치를 추구하였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말한다.

이광수는 1924년 1월 동아일보에 논설 '민족적 경륜'을 실었다. 자치론으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조선의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와 연합하여 조선 민흥회를 만들었다. 한편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는 1926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민족 협동 전선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조선 민흥회에 속한 민족주의자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신간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홍명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곧이어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일본 및 만주에까지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

신간회는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일제의 식민 통치의 잔학상을 규탄하였다. 또한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지원하고 청년 운동, 여성 운동, 형평 운동 등 과도 연계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코민테른에서 계급성을 강조하는 노선이 채택됨으로써 국내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신간회 해소론이 제기되었다. 결국 신간회는 1931년 해체되고 말았다. 신간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민족 협동 전선으로 반일 사회 운동 단체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6. 1946년에 제기된 다음 주장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두 정치 세력을 중심 인물과 단체 이름을 포함하여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3점]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6)과 단독 정부론의 대두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1946.6)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여 토지 개혁을 단행하는 사실상의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자,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대한 독립촉성국민회) 세력, 김성수 중심의 한국민주당(한민당) 세력이 대한민국 수립에 적극 나섰다.(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추진)

47. 다음 유물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시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을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4 점]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유물은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이다. 이들 유물은 집터와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에서 발견된다.

* 청동기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 **청동기의 정치적 변화:**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들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고 공납을 요구하였다.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는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평등 사회는 계급 사회로 바뀌어 갔고,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는데, 이런 지배자를 족장(군장)이라고 한다. 족장은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 **청동기의 경제적 변화:**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팽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 **청동기의 사회적 변화:** 생산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사유 재산의 발생)하였다.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계급의 분화는 죽은 뒤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무덤의 크기와 껍묻거리의 내용에 반영되었다. (고인돌, 돌널무덤)

집터 유적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다. 대체로 앞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북서풍을 막아 주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 곳에 우물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배산임수).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취락 여건으로 오늘날 농촌의 자연 취락과 비슷한 모습이다.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도 따로 설치하거나 한쪽 벽면을 밖으로 돌출시켜 만들었다. 창고와 같은 독립된 저장 시설을 집밖에 만들기도 하였고, 움집을 세우는 데에 주춧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집터는 넓은 지역에 많은 수가 밀집되어 취락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농경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정착 생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3. 다음 자료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역신전(逆臣傳)에 배치한 창조리의 활동 내용이다. 이를 읽고, 김부식의 역사관과, 그가 어떤 관점에서 창조리를 역신으로 평가하였는지를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4점]

9년 …… 8월에 왕은 나라 안의 남녀 15살 이상인 자들을 징발하여 宮室을 수리하였는데,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일에 지쳐서 그 때문에 도망쳐 흩어졌다. 兪助利가 諫하였다.
 “재난이 거듭 닥쳐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백성은 살 곳을 잃어버려, 장정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인과 어린아이가 구덩이에서 썩구니, 지금은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염려하며, 삼가 두려워하고 수양하며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 원컨대, 대왕께서는 깊이 헤아리십시오.”
 ……왕은 웃으며 “國相은 백성을 위하여 죽겠느냐? 다시는 말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창조리는 왕이 고치지 못할 것을 알고, 또 말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 물러나와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모의하여 왕을 폐하고, 乙弗을 맞이하여 왕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17, 고구려본기 5>

* 고려 중기 김부식의 역사관(합리주의적 유교 역사관)

김부식의 역사관은 합리주의적 유교 사관이다. 그는 유교 사관에서 나오는 충신의 개념에 따라 국왕이 잘못하더라도 신하가 국왕을 몰아내는 것은 불충으로 이해하여 창조리를 역신전에 배치하였다.

49.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에 대해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4점]

○ 요즘 곡물값이 싼 것은 대풍년 때문이 아니라 민간에 돈이 귀해서 나타난 것이다. 남부, 중부 지방에 대하여 말해 보면, 대풍년이 아니라도 가을이나 겨울에 돈 한 냥 값이 거의 쌀 10두에 이른다.

〈비변사등록, 영조 10년〉

○ 근래 각종 물건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비록 쌀과 벼가 있어도 반드시 돈으로 바꾼 뒤 교역을 한다.

〈비변사등록, 영조 11년〉

○ 돈으로 내는 것이 쌀로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황해도뿐 아니라, 경기, 호남 등지에서도 쌀로 상납하는 자가 모두 돈으로 하기를 원하여 서울 관청에 쌀이 귀하다.

〈비변사등록, 영조 50년〉

* 조선 후기 화폐 유통의 활발과 문제점

발달로 화폐가 널리 사용되었고, 대동미를 비롯한 세금과 지주에 바치는 소작료까지 화폐로 지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꾸준한 화폐 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과 지주들이 화폐를 재산으로 간직하여 유통시키지 않으므로 화폐 부족 현상(전황)이 심해졌다.

50. 다음은 명나라에 포류했던 최부가 남긴 글이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중국 학계에서 동북 공정을 통해 제기된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 주장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자신의 견해를 5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 [5점]

(1488년) 2월 17일 정오에 왕(王)씨 성과 송(宋)씨 성의 안찰어사(按察御史) 두 대인(大人)이 나를 예빈관(禮賓館)에서 대접하고는 물기를, "당신 나라는 무슨 장기(長技)가 있어서 능히 수(隋)나라, 당(唐)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모 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가 군사를 부리는 데 방법이 있었으므로, 병졸 된 사람들은 모두 옛사람을 친애(親愛)하고 장상(長上)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고구려는 한 작은 나라로서도 오히려 천하의 백만 군사를 두 번이나 물리쳤습니다. 지금은 신라, 백제, 고구려를 합쳐서 한 나라가 되었으니, 물산(物産)은 많고 땅은 크며, 재물은 넉넉하고 군사는 강성하며, 충성스럽고 지모 있는 선비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니다."라고 하였다. <표해록>

*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 반박

중국사 귀속을 주장하는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의 중원 왕조와 그에 복속되어 있던 지방 정권 사이의 내전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이듯이 명나라 관리들이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우리나라와 그들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조선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조선 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국가로 여기고 자긍심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보면 명 시기의 중국인과 조선 시기의 우리 조상들의 인식을 토대로 볼 때, 중국 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